

돌아온 김호령... 중원에 '비상령'



허리 통증 털고 퓨처스리그 KIA-KT전 4회 교체 출전
2타수 2안타·몸을 아끼지 않는 수비 등 공·수 맹활약
1군 복귀시 최원준과 자리싸움 2R...중원 격전지 예고

김호령이 복귀를 위한 시동을 걸면서 KIA타이거즈 중원 싸움에 다시 불이 붙었다.

허리 통증으로 재활을 해왔던 김호령이 26일 익산 구장에서 열린 KT위즈와의 퓨처스리그 대결에서 시즌 첫 경기를 소화했다.

김호령은 KIA가 4-1로 앞선 4회초 1사 1·2루에서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한 박정우를 대신해 대주자로 교체해 들어갔다.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 실패한 김호령은 5회초 첫 타석에 들어섰다.

2개의 볼을 지켜본 김호령은 연달아 4개의 공을 커트하며 풀카운트 승부까지 갔다. 9구 승부 끝에 볼넷으로 출루한 김호령은 이어진 최정용의 좌중간 2루타 때 홈에 들어와 득점을 올렸다.

김호령은 9회 세 번째 타석에서도 2구째 안타를 기록하는 등 복귀전에서 2타수 2안타 1볼넷 2득점의 활약을 했다. 포구에는 실패했지만 슬라이딩 캐치도 선보이는 등 수비에서도 과감한 모습을 보여줬다.

“오랜만에 시합했는데 생각보다 볼도 잘 보이고 결과가 나쁘지 않아서 좋았다. 허리도 이제 괜찮다”며 첫 경기 소감을 밝힌 김호령은 “빨리 건강하게 복귀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부상에서 벗어난 김호령이 첫 경기에서부터 식지 않는 타격감을 과시하면서 KIA의 중원 싸움 2라운드 시작됐다.

올 시즌 KIA의 중견수 자리는 최원준이 지키고 있다.

지난 시즌 주전 중견수로 활약했던 이창진이 허리 부상으로 캠프 도중 귀국하면서, 윌리엄스 감독은 빠른 발과 강한 어깨를 가진 최원준에게 외야를 맡겼다.

그리고 캠프 귀국 후 연습경기에서 김호령이 예상처럼 등장하면서 외야 중원은 예상치 못했던 격전지가 됐다.

부상으로 캠프에 참가하지 못했던 김호령은 타고난 수비 실력에 연일 맹타를 퍼부으면서 윌리엄스 감독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최원준과 김호령의 색다른 경쟁은 올 시즌 KIA의 관심사가 됐지만 부상이 변수가 됐다. 골반과 허리 통증으로 김호령의 시즌 출발이 늦어지면서 최원준의 독주가 시작됐다.

시즌 초반 최원준이 뜨거운 이름이 됐다. 새로운 자리에 선 최원준의 실수가 이어지면서 KIA의 외야에 고민이 쌓였다.

하지만 실수 연발 속 경쟁이 쌓이면서 빠른 발을 활용한 최원준의 장점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윌리엄스 감독과 동료 투수들의 믿음도 최원준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있다.

경험을 더하고 있는 최원준에 ‘수비의 달인’ 김호령까지 2020시즌을 위한 시동을 걸면서 KIA 외야에 다시 시선이 쏠리게 됐다.

박흥식 퓨처스 감독은 “김호령이 타석에서 두개의 안타를 쳤고 볼 대처 능력도 좋았다. 두 번째 안타는 변화구를 잘 컨택해 때렸다”며 “수비는 오랜만에 그라운드에서 나쁜 탓에 판단이 조금 늦은 감은 있었지만 다이빙캐치를 시도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첫 경기 결과는 좋았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부상이 반복된 만큼 점차 이닝을 늘려가도록 하겠다”며 “컨디션에 따라 4-5회를 뛰게 한 뒤 이상이 없으면 다음 주에는 경기를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모친상’ 김명찬 엔트리 말소... 김현수 첫 등극

KIA 타이거즈 좌완 김명찬이 모친상으로 엔트리에서 빠졌다.

김명찬은 지난 25일 오후 모친이 별세하면서 파주에 있는 빈소를 지키고 있다. KIA는 이에 따라 26일 KT위즈와의 원정경기 엔트리에서 김명찬을 말소했다.

경조사 휴가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김명찬의 엔트리 재등극은 10일이 지나지 않아도 가능하다.

KBO는 지난해 경조사 휴가를 신설해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가족 및 배우자의 사망 또는 자녀 출생 시 최대 5일의 경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KIA는 이날 김명찬을 대신해 우완 김현수를 엔트리에 등록했다.

김현수는 지난 1월 안치홍의 FA 보상선수로 KIA 유니폼을 입은 선수로 아직 후 첫 1군 엔트리 등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드래곤즈, 무패행진 잇는다

오늘 홈에서 아산과 K리그2 4라운드...이유현, 3R 베스트11에

전남드래곤즈가 안방에서 무패행진을 잇는다. 전남은 27일 오후 7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충남아산 프로축구단을 상대로 2020 K리그 4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이번 경기에서 전남은 시즌 두 번째 승리를 거두고 4경기 연속 무패에 도전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앞서 전남은 개막 후 세 경기에서 상대 공격을 완벽하게 봉쇄하면서 K리그에서 유일한 무실점팀으로 남아있다.

실점 없이 세 경기에서 모두 승점을 확보한 전남은 지난 16일 제주 유나이티드와 홈 개막전에서는 김주원의 헤더로 1-0승리를 거두면서 1승 2무를 기록하고 있다.

무실점 무패행진 중이지만 화력이 아쉬기는 하다.

세 경기에서 기록된 골은 단 하나, 승격을 위해서는 승리를 바탕으로 무패행진을 이어가야 한다.

전남은 앞선 홈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두며 2006년 3월 15일 울산 현대(1-0 승)전 이후 14년 만에 홈 개막전 승리를 신고했다.

안방에서 기본 좋은 출발을 한 전남은 익숙한 곳에서 시즌 2승에 도전한다.

광양을 찾는 ‘신생팀’ 충남아산의 발걸음은 무겁다. 앞서 충남아산은 안방에서 수원FC를 상대로 창



이유현

K리그2 3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3라운드 MVP는 수원FC 안병준에게 돌아갔다. 안병준은 충남아산과의 홈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5-0 대승에 기여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단 첫승에 도전했지만, 전반 22분 실점을 시작으로 5골이나 내주면서 0-5 대패를 당했다.

전남이 ‘유일 무실점’ 팀의 위용을 과시하면서 수비 약점을 노출한 충남아산의 골대를 가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팀의 세 경기 연속 무실점을 이끈 수비수 이유현은 26일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발표한

즐라탄 ‘시즌 아웃’ 위기

AC밀란 베테랑 골잡이...훈련중 발목 부상 은퇴 가능성도



이탈리아 프로축구 AC밀란의 베테랑 골잡이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39)가 발목 부상을 당해 ‘시즌 아웃’ 위기에 놓였다.

영국 방송 스포츠뉴스 인터넷판은 26일 이브라히모비치가 훈련 중 발목이 꺾여 다쳤다고 보도했다.

스카이스포츠는 “아킬레스건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 정말 검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AC밀란은 즐라탄이 시즌 아웃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된 세리에A는 내달 재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만약 이브라히모비치의 발목 부상이 심각할 경우 남은 시즌을 치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마흔 살에 가까운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아예 ‘은퇴’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브라히모비치는 올해 1월 같은 부위를 다쳐 2월까지 결장한 바 있다.

이브라히모비치와 AC밀란의 계약은 오는 6월까지이며, 구단은 12월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다.

이브라히모비치는 2018, 2019시즌을 미국프로축구(MLS) LA 갤럭시에서 뛰 뒤 지난해 12월 AC밀란으로 복귀했다. /연합뉴스

47세 투수 콜론, ML 복귀 의지 활활

“1년 더 뛰고파” 언론 인터뷰

베테랑 투수 바블로 콜론이 메이저리그 현역 연장 의지를 재차 밝혔다.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인 콜론은 1973년 5월 24일생으로 최근 47번째 생일을 맞았다.

콜론은 26일 AP통신 인터뷰에서 “나는 은퇴하지 않았다. 생각도 안 하고 있다”며 1년 더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마운드에 설 기회를 받는다면 46이닝을 던지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통산 3461.2이닝을 던진 콜론이 46이닝을 더 던지면 명예의 전당 입회자인 후안 마리칼이 세운 도미니카공화국 출신 투수 최다 이닝(3507이닝)을 넘어설 수 있다.

콜론은 1997년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데뷔해 라틴아메리카 출신 투수 최다승인 247승(188패)을 기록했다. 565경기 중 552경기를 선발

투수로 뛰었다.

2018년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뛴 콜론은 2019년에는 메이저리그 마운드를 밟지 못했다.

그는 “아구는 늙은 사람이 아닌 젊은 사람을 위한 스포츠임을 알고 있다”면서도 “계속 훈련하고 있다. 당장 경기에 뛰지는 않지만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콜론의 계획을 방해하는 최대 장애물은 코로나19이다. 메이저리그는 코로나19로 개막이 연기된 상태다. 그는 3월 멕시코에서 투수 활동을 하려고 했지만, 멕시코에서도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됐다.

/연합뉴스